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7.17.(목) 오후 2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안서연

김병수, 임태순 위원 7인(최은수, 백명희, 박세진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7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임태순 위원님부터 평소 순서를 역으로 진행 해보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7월 3일에 보도한 「음주 못지 않은 '약물 운전'...5년새 면허취소 3배 ↑,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약물 운전 문제를 이경규 씨 사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도 경각심 있게 다룬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이와 같은 사례의 상당수가 처방약 복용자라는 사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나도 모르게 위법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경규 씨가 복용한 공황장애 치료 약물처럼 흔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상 어떤 약물이 금지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소개한 영국·독일(24시간), 호주(12시간) 등의 운전 제한 시간 기준은 국내 약물운전 단속 체계에도 큰 시사점을 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단순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국민 대상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고지 체계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도 이번에 이경규 씨 사례를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약물을 먹고 운전하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몰랐고 또 그게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면허 취소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게 나오기도 하고 본인도 처음에는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한 듯하다가 사실은 약물을 먹고 이렇게 바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나중에 자인하기도 하고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약물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일이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방준혁 기자의 리포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를 불러 아침에 어떤 약물을 먹으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전문가 인터뷰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명인이 관련되면서 이렇게 사례가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사회 분위기가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보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서면 제출)

[현장연결] 이 대통령, 문화예술계 간담회..."대한민국 소프트파워 키울 좋은 소재", 연합뉴스TV가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은 우수했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며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 것은 시의성 있고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의 초입에 들어섰다",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세계적 선도국가로 갈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산업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장에서 문화예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문화정책에 대한 대대적 지원 의지를 밝히며, 문화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은 문화예술계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메시지로 다가왔다고 평가됩니다. 연합뉴스TV가 대통령의 문화정책 의지 표명을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 현장의 분위기와 참석자들의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조명한 점은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화예술계가 직면한 산업적 어려움과 구조적 한계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과 선거 당시 공약을 분석해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해당 정책이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분석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향후 정책 추진 상황 지켜보면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백명희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서면 제출)

다큐.교양 > 뉴스프리즘 일상화 되는 '극한 호우' 사전 대비로 피해 막아야 2025.6.29. 몇 년 전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폭우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뉴스프리즘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름 폭우로 인한 맨홀사고, 반지하침수, 빗물받이 역류등 다양한 사건 사고를 요약해서 살펴보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올 여름은 6월20일 즈음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6월

21일 남원, 정읍의 일강수량은 1970년대초 이후 최고값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열대야 관측일도 대전, 청주의 경우 예년보다 20여일 이상 빨라졌습니다. 올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장마로 인한 큰 피해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첫 폭염경보가 7월7일에 발효되었는데 지난해보다 18일 이르다고 합니다. 올해는 조기에 열대야가 시작되었고 무더위 기간도 길고 강도도 높다고 합니다. 호우에 대한 대비책이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합뉴스 TV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날씨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폭염경보가 발효된날은 속보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고 온열질환 관련 인명피해도 있을 것 같으니 날씨 관련 뉴스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각 지역 최고 기온이 갱신되고 있으니 극한 무더위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뉴스프리즘 보도를 한 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올해는 장마가 빠르게 끝나고 유례없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저희 연합뉴스TV는 지난 12일 폭염 문제를 다룬 뉴스프리즘을 제작, 방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 안서연 위원

- 제2의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 역수출 꿈꾸는 시골마을 소극장 주인, 지방의 인구, 산업, 문화가 소멸되어 가는 시대에 흥성에서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분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었습니다. 특히 어쩌면 해피엔딩 이라는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극장 운영과 관련한 소재 선정도 좋았고, 소극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스토리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소극장 뿐 아니라 지역 상인을 함께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제작진의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 현재 시사, 문화, 국제 정세 관련한 내용 중 시청자들이 주목할만한 주제를 짚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 핵시설 파괴 했더니까! 보여줄게!"...미국방부가 공개한 영상 알고보니에 관한 것은 연합뉴스tv가 직접 취재한 것인지 다른 출처를 통하여 알려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 창을 보아도 사실 유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시청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를 넘는 중국...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굶뜨까지?" 부분은 서경덕 교수의 SNS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이외의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SNS를 참고하였더라도 다른 전문가 인터뷰를 하는 등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현장의 재구성] "일본 여행 가도 되나?"...7월 대지진 공포 확산, 현재 7월 일본 대지진에 관하여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이슈 이외에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단히 언급해 준 것도 좋았습니다.

- [현장속] 尹 4개월만에 다시 구속 되나...영장심사 결과에 '촉각', 이채연 팽재용 기자가 윤 전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쟁점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법원에 데스크를 마련하여 안정감이 있으면서 현장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제2의 어쩌면 해피엔딩 뮤지컬 역수출 꿈꾸는 시골마을 소극장 주인이라는 것은 저희 젊은 2년차 PD가 만든 콘텐츠인데요. 사실은 지금 지역소멸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을뿐더러 지역의 문화가 중앙에 비해서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시골 마을에 대한 소극장을 연 젊은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도가 좋았고 나름대로 인터뷰도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썬속뉴스]는 저희가 디지털 파트에서 짧게 짧게 그날 중요했던 뉴스들을 만드는 건데 이런 핵시설 파괴 관련해서 크레딧을 오른쪽에다 해줬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던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출처 표기를 명확히 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경덕 교수 SNS 문제 이런 것도 조금 더 완결성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거는 그냥 짧게 만드는 그런 콘텐츠이다 보니까 서경덕 교수 주장을 잠깐 보여주는 정도로 그친 것 같습니다.

- [현장의재구성] 일본 여행 가도 되나 이거는 현장의재구성이라고 TV에서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활용, 제작해서 보여주는 그런 코너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일본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가 아주 핫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미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 영장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큰 뉴스가 있으면 법원에 스튜디오를 직접 차립니다. 차장급 기자랑 젊은 기자 2명 정도가 나와서 현장 생중계를 하는데 이런 현장 생중계를 했을 때 역시 시청률도 오르고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 이런 걸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 < 연합뉴스 TV 스페셜 381회 : 더 크고 찾아지나? 여름철 '땅 꺼짐' 주의보 >, 우선 지난 4월 26일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내 발밑이 불안하다... 확산하는 '땅 꺼짐' 공포>에 이어 땅 꺼짐 사고가 집중되는 여름 장마철에 앞서 6월 22일자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 다시 한번 땅 꺼짐 사고에 대한 발생원인, 전조증상, GPR(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지자체의 땅 꺼짐 방지대책, 재난안전관리법 상 사회재난에 땅 꺼짐 사고 포함 필요성 등 땅 꺼짐 사고에 대해 추가 취재하여 방송함으로써 최근 땅 꺼짐 사고 공포로 힘들어하는 시청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사고 발생원인부터 사고 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하여 시청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일상화 되는 '극한 호우'...사전 대비로 피해 막아야 >, 여름이 되면 아직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는 '23년도 14명의 인명을 앗아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전국 여기저기에서 기록적인 폭우 피해 사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들이 사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전에 대비를 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재성 참사였다는게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올 여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 등 이상기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듯이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맨홀추락방지시설, 극한 호우에 비해 미흡한 우수관리시스템

등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 안전점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수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더위와 기록적 폭우가 빈번한 올 여름도 사고 없이 특히 인명 사고없이 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정부, 주 4.5일제 본격 추진...노동문화 바뀌나 >, 지난 초기 대선에서 주요 정책이슈 중의 하나였던 주 4.5일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형태의 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에서 보듯이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국가별 1인당 연간근로시간이 한국은 1,872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에 이어 6번째로 긴 국가이며, OECD 평균 1,742시간 보다 130시간이 길고,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529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없는 경기도형 주4.5일제를 70개 기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벨기에, 영국 등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내용에서도 언급됐듯이 근로시간 단축이 일부 대기업 노조들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이므로 우리 사회의 약자 중 하나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땅 꺼짐 주의보는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희 채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도 뉴스 프리즘을 통해서 조금 보도를 했는데 그때 보도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다뤄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연합 뉴스TV스페셜이라는 조금 더 약간 탐사 보도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사안 및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또 현장을 가보고 정부 관계자나 지자체 관계자도 만나고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 대형 아파트나 건물 짓는 게 많아서 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 꺼짐 자체 수는 옛날부터 줄고 있는데 대형 땅꺼짐 사례가 훨씬 늘고 있다는 게 요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 잘 우리가 점검하고 미리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언론이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 극한 호우 이것도 기후변화, 이상기후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비가 엄청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거의 동남아 폭우 수준으로 내렸다가 또 갑자기 그쳤다가 또 다시 내리고 이래서 대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한게 특히 인명 피해가 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사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부 당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독려하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 문화의 문제는 저희가 여기 OECD 자료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근무 시간 자체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많은 편이긴 한데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장 별로 들어가면 반도체나 AI 같은 그런 쪽에 종사하는 쪽은 주 6일 근무해도 모자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4.5일제 근무는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입장이 다른데 그런 것들의 어떤 이해관계까지 잘 따져가면서 저희는 사회적 공론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보도를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전계순 위원

"내 약은 괜찮나"...공황장애·우울증 '약물 운전' 비상등, 최근 마스크에서 떠들썩했던 한 50대 운전자(연예인)의 차량 접촉 사고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운전자는 "병원에서 처방 받은 항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서 이런 경우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마침 연합뉴스TV에서 시의적절하게 '출근길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위 보도 내용을 토대로 약물 운전 등의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공동체 사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주의보' 등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정확한 견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도 '출근길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보게 됐는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라는 전문가께서 꽤 자세하게 어떤 사안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괜찮고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ADHD 약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새로운 지식을 제가 많이 얻었는데 어쨌든 이 약물 운전이라는 게 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관련된 지식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보도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석 위원

- [출근길인터뷰] 올여름도 '러브버그와의 전쟁'...퇴치법 없을까,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러브버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잘 모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러브버그'에 대한 퇴치법을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주는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충이라고 하지만, 외형상 보기가 흉해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에 방송을 통해 정확한 유입경로 등 실상에 대해 알려줘서 그대로 적용하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치방법 중 화학적방법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였기에, 현재 '러브버그'에 대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정신채린! 삶의현장] 수형복 입고 교실에 앉은 아이들..."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 청소년들에게 교정시설 내 학교를 만들어 그들에게 교화할 기회를 제공하여 죄값을 치루고 나서 사회에 복귀할 때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직 교도관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에 가면 범죄를 배우고 오는 악순환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동안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이런 포맷의 방송은 자주 볼 수 없는 기회이기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연합뉴스TV가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출근길인터뷰' 러브버그와의 전쟁을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대 생명과학부 신승관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캐스터가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 뭐가 있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교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시다가 캐스터가 다른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은 답을 안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출근길 인터뷰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또 몇 개 더 있으니까 거기서 덧붙이지를 못하고 그냥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갔더라고요.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모바일 살충제를 뿌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교수님이 중간에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좀 아쉽게 콘텐츠가 마무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 '정신채린 삶의현장'에 교정시설 체험 콘텐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TV에서는 좀 하기 힘든 내용인데 디지털 콘텐츠만 할 수 있고 가능했던거라고 봅니다. 역시 디지털 콘텐츠는 이렇게 TV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자녀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삶의 희망이라고 판단, 일요와이드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자녀다문화 가족의 주택수리 지원서비스는 충북지역에서 추진된 주택수리지원 서비스였음. 내용의 주인공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데 집수리에 필요한 경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였음. 집주인은 자신은 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였음. 복지경계선 대상자의 존재를 알려준 점에서 매우 유익한 사례라고 생각함. 즉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다자녀는 복지대상자는 라벨을 갖게 되고 그 라벨은 정부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 주어지는 혜택의 귀중함은 실종되어가는 현실임. 그러다보니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복지대상자를 부러워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을 목격함. 복지실천의 궁극적 목표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문헌에서는 다루고 있음. 복지대상자로 전락해야만 가능한 정부서비스 보다 자발적으로 노력하려는 복지경계선 지역 사회구성원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과 현실성을 점검해 주는 기사를 다루어주길 요청함.
- AI주권 확보 치열, AI주권시대를 맞이하는 기사, AI 관련 기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루어오고 있음. 몇 달전 사이버트릭(테슬라:AI기술로 주목받는 전기픽업트릭. 2025년 5월출시)의 출시 홍보 차량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기사,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로봇 톤다 기사, 딥페이크범죄 행위자는 80%가 10대라는 기사등 이미 다루어진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소감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유사한 방식(위험과 경고를 알리는)의 기사라서 AI의 독특한 성향을 이해하는데 불편감을 가졌음. 반면 본 기사는 AI산업 전문가 인터뷰, AI시대

의 핵심 가치(정보수집과 보안의 중요성), 딥페이크문제 등 공평하게 다루고 있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시기에 적합한 시민인식을 갖도록 하는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함. 다만, 진로탐색을 걱정하는 청소년세대들에게 AI시대가 요구한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는데 어떤 노력과 체험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내용의 기사를 제작해 주길 바람. AI 시대의 신종 일자리 유형 소개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식,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어야 할 체험현장의 현실등을 다루어주어야 함. 청소년세대는 스스로 앱과 웹을 통해 자기들끼리 찾아내고 찾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방송사는 팩트 체크된 정보 제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려면 1회성 기사로 다룰 것이 아니라 연속시리즈물로 제작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공간에 홍보배너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디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람.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다자녀다문화 가족 주택 관련 지원 서비스는 지자체마다 이런 제도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충청도 같은 경우는 아마 지자체가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 성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했다가보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성금을 거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사례인 것 같은데, 예컨대 지역에서 머물게 하고 출산도 많이 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저희가 소개함으로써 여러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것을 좀 본을 받고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 경계선뿐만 아니라 예컨대 경계선 지능장애자 같은 경우도 일반 지적 장애자들보다 혜택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갖고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AI 기사는 요즘 예컨대 다양한 AI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새롭게 만든 어떤 기술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뭔가 새로운 형태들의 포맷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AI 시대에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이 좀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진로 탐색을 걱정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럼 이것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서면 제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연합뉴스TV를 포함한 보도채널 전반에 구조적·경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법안입니다. 특히, 공정성과 편집 독립성, 재승인 기준 등에서 연합뉴스TV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

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네,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 「뉴스프리즘」의 호우 보도, 시청자의 경각심 제고와 사전 대비 필요

‘뉴스프리즘’에서 다룬 극한 호우 관련 보도는 시청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위험성을 알리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현재까지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율이 한 자릿수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한 점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보 제공으로 보다 확장되었으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호우가 시작되기 전부터 맨홀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예산 규모, 지자체 대응 계획 등을 사전 취재해 선제적으로 전달했다면 시청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기상 재난 보도는 단순한 경고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지역별로 세분화된 안전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방 ‘악성 미분양’ 확산», 프리즘 코너를 통해 다룬 대구지역 악성 미분양 문제는 시의성과 중요성을 모두 갖춘 보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부와 LH의 임대주택 전환 시도, 준공 후 물량 해소의 한계 등 구체적인 정책 현황까지 소개하며 시청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서 미분양 현황 그래프의 크기가 작고 시각적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프 배경의 채도를 낮추거나 대비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요 정보가 더욱 부각되도록 구성하면 전달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향후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경우, 후속 보도를 통해 지역별 실효성과 실제 수요 반응 등을 분석해주는 내용 구성이 뒷받침되면 신뢰성 있는 연속 보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자체의 반려로봇 보급 사업»,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반려로봇을 보급하는 정책을 다룬 보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정보 전달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현황 소개에 그치기보다 반려로봇을 활용한 실제 사례나 효과 분석, 이를테면 삶의 질 변화와 정서적 안정 여부, 그리고 기술적 개선점 등을 포함한 심층 보도가 뒷받침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반려로봇과의 생활 변화 전·후 비교, 노인 대상 인터뷰, AI 기술의 적용 범위 시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보도가 병행된다면 공공정책 홍보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치경찰제의 현황과 한계», ‘자치경찰제’에 대한 보도는 많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도를 소개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특히 해당 제도의 존재와 취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운영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구성은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자치경찰제가 ‘이름뿐인 제도’로 남아 있는 실정임을 명확히 짚은 만큼, 향후에는 실제 운영 현황, 인사권 이양의 추진 여부, 관련 법 개정 논의 등을 지속적인 연속 보도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 행정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책 추진 과정과 현장 적용 사례를 함께 보도해주는 심층 리포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극한 호우 관련 부분은 저희가 기사 세 꼭지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인데 주로 극한 호우가 벌어지고 있는 여름 기상기후나 기상이변, 현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상당히 리포트들이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방 방법,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기상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전체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태풍 등 기상재난이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부동산 보도에서 그래프 크기가 좀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뉴스를 편집하거나 그래픽을 만들거나 자막을 하든 어떤 것도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편하고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반려로봇 보급 사업 리포트는 요즘에 새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인데 경제부 기자가 정리를 잘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볼 만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경찰제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중앙에 집중돼 있고 자치단체에 되어 있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